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업</b>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b>내피알</b>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세월호, 고의로 침몰시켜”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세월호 7시간. 그 때 대통령인 박근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박근혜가 왜 아무 일도 안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첫 질문입니다. 청와대는 그저 시술 안 했다, 곳 안 했다, 연애 안 했다는 취지로 청와대 경내 즉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언 변호사는 박근혜가 침실 딸린 방에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그건 박근혜가 출근 안 한 것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박근혜 일당이 다음엔 흑시 이런 거짓 해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돼 바람 빠는 차원에서 예측해봅니다. “다른 억측하지 마! 대통령에게 지병이 있어. 여성에게만 생기는 병. 그 병을 치료받느라 그랬어. 여성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대통령을 비방 모략하고 싶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사이 박근혜’ 층은 결속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업무를 봤다면 말입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마나한 지시라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지침이 하달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청와대는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에 조차 진실의 빔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가족 예은 아빠 유경근 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이 정부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은... 예은이를, 예은이들을 죽였습니다. 구조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하면 안됐고, 수장시켜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가 두려운 이 유입니다.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개인으로 모인 전국 100만의 촛불을 목도하며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신약성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빛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2016년 11월의 넷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1일(월) 1부 | 예은아빠 "정권, 세월호 수장시켜야만 했다"

[오프닝] 침실 딸린 방에서 업무 봐? 갈수록 해명도 저급해지고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사드에 빠진 중국, "한국 스타 등장하는 드라마광고 방송금지"
- 어제 검찰 발표 "'박근혜 공모'만 9번 표현"...차이 사실상 주범
- 새누리당 "32명 탄핵 동의"...170석 야당 표단속만 하면 가결
- 조선 "차 이성상실"...중앙 "검찰 기죽지 마"...동아 "탄핵해야"
- '국민 영웅' 김연아 박태환 '왜 찍혔을까'...박근혜에 찍혀서
- 차, 검찰 압박에도 버티지만... '사이(shy) 지지층'은 없다
- [뉴스듣기능력평가] 시원찮은 최재경...그는 과연 감 떨어졌나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내전으로 경황없을 쿠르드에서도 박근혜 무당정권 TV뉴스 화제
- 중국 이미 소소한 사드 보복...한류 차단으로 본격화할 듯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토요일 집회 후일담] 행복하게 혁명하는 새로운 사회
- [월요 경제학] 정치가 비즈니스면, 시민은 어떤 일 해야하나?
- [공화국 논평] 대통령 빅넷 먹인 김수남에 대한 중대 조치



참 저렴한 대통령

한겨레 박근혜는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뒹뒹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박근혜는 7시간동안 관저에 있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지만 종일 관저에 머물며 회의 한 번 소집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면서도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도 박근혜가 아닌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하여간 특검의 어깨가 무겁다.

경향신문 김연아·박태환이 찍힌 ‘대단한’ 이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협박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리우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한 것이다. 왜 굳이 문체부 차관이 나서 집요한 협박과 회유를 불사했을까. 체육계 고위인사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주최한 한 행사에 참가를 요청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박태환 선수가 참석하지 못하자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 또한 피겨여왕 김연아씨는 차은택 주도로 만든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스케줄 상의 문제로 거절했다. 이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는 ‘김연아는 찍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일당이 감히 스포츠영웅 김연아 박태환까지. 경향신문이 요약했다.

중일일보 차, ‘줄기세포 주사’ 맞은 것도 불법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순실의 소개로 대통령 박근혜가 201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얼굴 미용을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방송에서 거론된 대로 최순실과 박근혜가 시술받은 주사제가 불법의약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증식하면 불법이다.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것도 수사 받아야겠네.

시간은 국민의 편

한국일보 ‘사이 박근혜’ 따위는 없다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데에는 ‘사이 박근혜 지지층’에 대한 믿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인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부끄러워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으며 부산,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지역의 전통적인 박근혜 지지층이 충성심을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사이 박근혜? 에라이 박근혜다.

東亞日報 엘시티 수사, 친박계 수사로 번지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서 수배 중이던 이영복 청안 건설 회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수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친박계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이영복 회장이 지명수배 중이던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는 박근혜 지시, 검찰이 잘 이행하고 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망국 외교’를 막으려면”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하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이  
제훈 통일외교팀장의 “‘망  
국 외교’를 막으려면”이다.  
“소주잔을 기울이다 헤어지  
려는데, 그가 내뱉듯 말했다.  
다. ‘박근혜 대통령, 반드

시 끌어내려야 해요.’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일곱 대통령의 외교 행위를 보좌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외무공무원. 먹빛 얼굴로, 그가 말을 이었다. ‘정치권에서 내치·외치 나누자고도 하던데,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의도적으로 과잉 대응해 일을 키우려 할 겁니다. 박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박 대통령한테 외치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국내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뭘 하겠어요? 이 정부 들어선 ‘문답 없는 기자회견’이 정상외교를 준비하는 이들의 중요 교섭 과제예요.’ 민망한 ‘국가기밀’은 이미 온 우주에 퍼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주요 국외 언론의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는 엮기 그 자체다. Robot·Puppet(꼭두각시), Shaman Adviser(무당 조력자), Shamanistic Rituals(굿), Sorcerer Regent(마법사의 섭정), Astrological System(점성술적 체계)···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사회에서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그(박 대통령)를,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도드라지게 전했다.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선언이다.”  
지도자를 잘못 뽑고도 바로 잡을 여지가 없다? 온전한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범법자 대통령에 대해 쉽게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치주의의 기풍을 바로세우는 식으로 헌법이 보완돼야 하겠다.

11·26, 300만으로 끝장내자